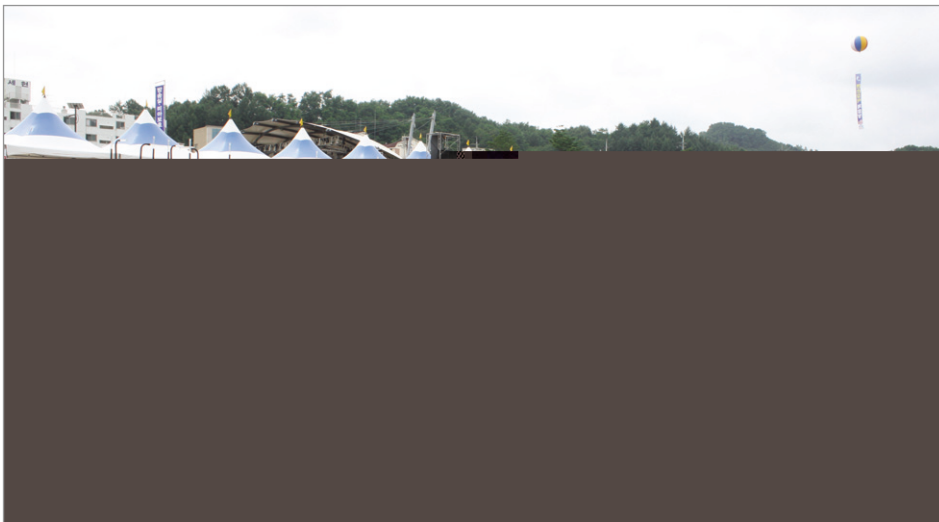


경북 봉화군 '봉화은어축제'

사고의 작은 변화 속에서 더 좋은 축제는 태어난다

바야흐로 '축제공화국'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. 전국적으로 수백여 개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지금도 열리고 있고 앞으로도 열릴 것이다. 다만, 갈 수 있는 축제는 많더라도 가볼 만한 축제는 많지 않다는 것이 선택을 해야 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안고 있는 위험이다. 일단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어느 축제장이라도 찾았다고 하면 그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가볼 만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.



동심과 추억이 자연 속으로 스며들다

1 가 .
가 ,
1,300 9~10 가

3~4

90

가 , 1999
“ 가 ”

가

1

비어있는 잔 그리고 비바람이 삼켜버린 시작!

1960

1970

가 ,

가

가

가 (實利)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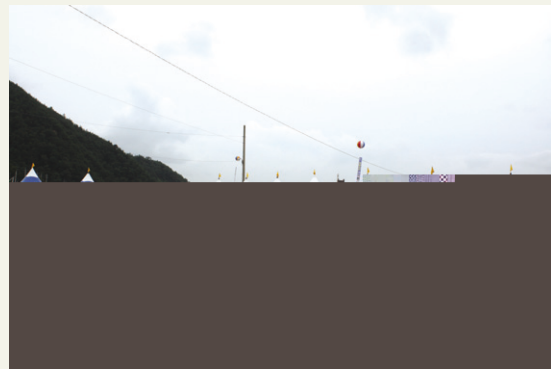
가

3

13

2002

2008



과거의 추억과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봉화은어축제

가

화합의 장!

5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10

2011

가볼 만한 축제에서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



대화합의 장이 되고 있는 은어축제

가,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1



2011

9

13

89

260

가

2010 “

”

김대근

경북 봉화군 문화관광과
kdg11140@korea.kr